

# Borealis, LLDPE 35만톤 건설!

## 오스트리아에 건설해 동유럽 공략 ... OMV는 PE 50만톤으로 확대

Borealis는 유럽 LLDPE(Linear-Low Density Polyethylene) 수요가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오스트리아 Schwechat에 LLDPE 35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LLDPE 플랜트는 2005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유럽의 LLDPE 소비량이 연평균 6-7% 증가함으로써 폴리머 수요도 증가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Borealis는 유럽의 LLDPE 수요 신장률이 PE(Polyethylene) 수요 신장률을 초과함에 따라 앞으로 10년 안에 LLDPE 시장규모가 450만톤으로 2배(200만톤)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유럽시장은 LDPE(Low-Density PE)에서 LLDPE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최근 LDPE 시장은 정체기를 겪어 왔으며 앞으로 정체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LLDPE 신설 플랜트는 주로 이태리, 프랑스 및 독일의 Blown Film 시장에 원료를 공급하고 동유럽 지역의 수요강세로 큰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Schwechat은 이태리 비엔나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유럽 시장 접근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Borealis는 서유럽에 비해 동유럽 지역의 수요가 급속히 신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유럽 개발을 확대할 방침이다.

LLDPE 플랜트가 생산에 들어가면 Borealis는 Schwechat 소재 LDPE 및 HDPE(High Density PE) 플랜트를 폐쇄할 계획이므로 Borealis의 PE 순 생산능력이 총 15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또 총 2억유로(2억2600만달러)를 투자해 Schwechat 소재 2개의 PE 생산능력을 30만톤으로 9만톤 확대하고 있으며 모두 Borealis의 특허 Bimodal 기술인 Borstar 기술을 채용할 계획이다.

Borealis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OMV도 2억유로를 투자해 Schwechat 소재 PE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50만톤으로 15만톤 증설하고, 프로필렌(Propylene) 생산능력은 40만톤으로 10만톤 확대할 방침이다.

OMV 및 Borealis의 Schwechat 합작 투자는 지역 최대의 단일 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Schwechat 지역의 PE 생산능력은 총 1억90만톤(OMV의 90만톤과 Borealis의 1억톤)에 달함으로써 유럽 석유화학 시장의 최대 생산지역 가운데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Borealis의 나머지 지분은 Statoil이 50%, Abu Dhabi의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가 25%를 소유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9/29>